

## 아이엠에프와 기타

### Guitar and I.M.F

김인환 / TAS건축사사무소

by Kim In-Hwan

예전에 어느 의사가족으로부터 “의사를 하려면 종교생활에 의지하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을 몰두시킬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그것은 매일같이 아프고 찡그린 사람만 대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다뤄야 하는 긴장된 생활을 해야하는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종교나 취미 생활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비단 의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잡하고 힘든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취미생활은 본업 이상으로 중요한 데 필자는 그 동안 기타(GUITAR)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 기타(GUITAR)와 나

흔히 내가 기타를 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나이에 기타를 치느냐고 의아해하면서도 사치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나 기타를 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퇴근 후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는 시간에 이왕이면 생산적인 일(?)을 하자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다보니 연주회도 갖게되고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에게서 사사를 하기도 하였다.

내가 기타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30여년 전인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으로 만약 그 당시에 지금처럼 기타악보나 책 같은 자료가 많았다거나 체계적으로 기타를 가르치는 학원 등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내 직업이 기타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기타를 알고서 기타에 기울인 내 노력은 전문인에 버금갈 정도가 아닌가 싶다. 대학시절에는 지나치게 기타에 열중하여 유급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학교성적에 지장을 받았고, 군대생활 중에는 손톱은 잘려 나갔지만 휴식시간에 바닷가에 앉아 기타를 치면서 기타인의 꿈을 키워 보기도 했다. 그리고 한때 회사업무로 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몇 년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국에서의 외로움과 삭막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타의 힘이 컸다. 사회생활하는 동안에는 학창생활처럼 기타와 함께 할 시간은 없었지만 항상 기타는 내 곁에 있었고 틈이 날 때마다 몇 시간씩 함께 하며 시름을 달래기도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였다. 또, 이 기타는 그 동안 나의 좋은 동반자이기도 하였지만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는데 우리 가족들의 노래반주로 기타가 애용되었고 특히 딸이 어렸을 때는 내 기타반주 없이는 노래를 부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창시절의 소망으로—, 만약 결혼을 하게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꼭 기타를 알게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울인 노력은 내가 생각해 보아도 대단하지 않았나 싶다. 즉, 연애시절부터의 아내에게 기타나 음악이야기로 감명(?)시킨 타인지 그 어려운 사랑이 이루어졌고, 결혼선물로 아내에게 당시의 사정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의 수제기타를 선물하여 매일 기타를 가르쳤고, 또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는 훌륭한 여류기타리스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유명한 기타리스트에게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사사를 받게도 하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가 공부하는 선생님에게서 나와 같이 기타공부를 시키기도 했으며, 특히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에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명예교사로 2년간 학생들에게 클래식 기타를 가르치기도 하는 등 가족들에게 기타에 관한 한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나의 기타에 커다란 전기가 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몇 사람의 유명한 기타리스트들로부터 사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교육은 내가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나만의 기타에서 음악적 표현과 분석 그리고 각종 연주법 등으로 나의 기타실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때는 내 본업보다도 기타에 더 열중하여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으로 삶의 의욕이 생겨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서울 YMCA회관에서 연유회와 주변으로부터의 요청으로 초청 연유회를 갖았는데 이러한 것은 내 일생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 건축과 기타(GUITAR)

건축설계를 한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설계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일로 많은 생각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일인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를 한다는 일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설계를 하는 본래의 업무 외에도 수주를 위해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하고, 때때로 자금이 부족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욱이 요즘과 같은 I.M.F상황에서야.

때때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의 안타까움과 사무소의 여러 잡다한 일들로 잠 못 이루는 밤과 직원들 급여와 임대료 등 각종 자금문제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가. 이러한 때 기타는 나에게 참으로 좋은 친

구였고, 기타는 나에게 큰 위기가 되어 주었고, 기타는 나에게 영원한 동반자였다.

사람에게 무언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심란해 있어도 집에 가서 기타를 치겠다는 생각을 하면 흐뭇해져서 곧 그런 일을 잊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때 술이나 담배가 해결방안이 되기도 하겠지만 기타만큼 자신을 몰두시켜 정신을 뺏지는 못할 것 같다. 즉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기타음악을 듣다보면 어느새 마음도 안정되고 생각이 저절로 정리되어지는 느낌을 받고 악보와 기타에 몰두하다 보면 온갖 잡념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져서 곤한 잠을 잘 수 있어 나의 일에 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의사뿐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꼭 종교 생활이나 자신을 몰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권하고 싶다. 특히 나는 언젠가 둥글고 아름다운 기타의 형상을 이미지 화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그런 건물을 지을 능력이 있다면 그야말로 남의 간섭받지 않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의 신경 쓰지 않고, 설계비에 전혀 신경 안 쓰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건물 “제발” 한번만이라도 짓고 싶다. 그 곳에는 오묘하고 델리케이트하며 아름다운 기타음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기타전용 연주홀과 기타서적과 악보를 취급하는 기타전문 서점과, 각종기타와 악세서리를 취급하는 기타전문 악기점과 그리고 기타인의 만남의 장소 등 명실공히 기타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기타하우스(Guitar House)를 내가 “직접설계”하여 내가 “직접건축”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많은 돈, 그런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건축설계(?)나 하고 있고 기타나 두드리고 있어서야 어느 세월에도 그런 건물을 지어볼까.

### I.M.F와 기타

지금은 아이 엠 에프라는 것을 뺏속 깊이 실감하고 있지만 그 철천지 같은 I.M.F가 시작되던 2년 전에 나는 건축설계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이런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는데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게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I.M.F가 시작되면서 사무소의 일이 줄어들자 직원들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무엇을 해볼 것인가 상의 하다가 우리의 경험과 특기를 살려 “건축실무학원”을 창업해 보기로 한 것이다. 여

러 아이템을 정하고 시장조사와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건축실무교육은 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건축CAD, 건축스케치, 건축그래픽, 건축계획 등의 건축실무과정을 교육하지는 것으로 시중에 많은 학원이 있지만 건축실무만을 위한 교육 기관이 없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CAD나 그래픽의 경우 건축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다보니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스케치의 경우에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건축스케치만을 교육하는 학원도 없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현상설계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가며 그래픽작업을 외주처리 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을 일반컴퓨터학원에 보내 보았고, 스케치를 배우기 위하여 일반미술학원에 보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래픽은 건축하는 사람의 손으로 건축적인 그래픽을 해야하고, 스케치도 그러하며 특히 건축계획의 경우에도 이론적인 것 외에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계획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과정들에 대한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현장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세월을 보내야하고 현장의 실무자들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선배들로부터 적당히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으로 학교와 현장간의 가교(架橋)역할을 담당해 보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계획, CAD 등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고 다른 과목은 전문업체출신의 실무전문가를 초빙하였으며 남은 직원들은 관리와 홍보업무를 맡아 I.M.F가 시작되던 해에 "TAS건축학원"을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들의 생각 같이 간단히 되는 게 아니었다. 건축은 알지만 학원이라는 특성을 몰랐던 우리가 그 동안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았다. 학원의 위치선정, 홍보, 학생관리, 시설, 행정 등의 문제와 특별히 덩치가 커지면서 예전에 설계 사무소만을 운영하던 것하고는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달라졌고, 자금문제 등은 엄청난 부담을 주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이 기타(GUITAR)는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

정말 매일 아침의 새벽기도는 큰 힘이 되었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용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러한 종교적인 힘 외에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이 기타

(GUITAR)였다. 그것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기타를 치는 생각을 하면 흐뭇한 마음이 들고 퇴근길에 차안에서 "encouragement(위로)"와 같은 기타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였으며, 또 기타를 연주하다보면 기타에 집중하게되고 어느새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어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었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함과 스트레스의 해소는 종교적인 힘이나 기타 말고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을까. 특히 기타는 다른 취미에 비하여 여러 좋은 점이 있다. 나는 기타 외에도 골프, 분재, 난 기르기 등의 취미가 있는데, 기타만큼 남과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이 혼자 어느 때라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을 흠뻑 젖어둘게 하는 취미생활도 없는 것 같다. 기타는 오묘하고 델리케이트한 소리로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들의 시름을 달래주기에 아주 적합한 특징이 있다.

우선 기타는 걸모양부터가 여성과 같이 아름답다. 조그맣고 둥글둥글하여 몸에 꼭 껴안고 연주할 수 있는 이 악기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고요함과 고상하고 깊은 생각들까지 세세히 표현할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기타는 작아서 갖고 다니기 쉬우므로 언제 어디서나 연주할 수 있어서 좋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의 악기와는 달리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워 조금만 배워도 자신의 기타반주에 맞춰 노래 부를 수도 있어 좋다. 취미생활이란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업인 직업생활에 너무 얽매어 - 현실적으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긴 하지만 - 설불리 특별한(?) 취미생활을 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취미생활은 우리들의 삶에서 본업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한다. 특히 아이엠에프를 맞아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 건축인들 모두도 자신을 몰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통하여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